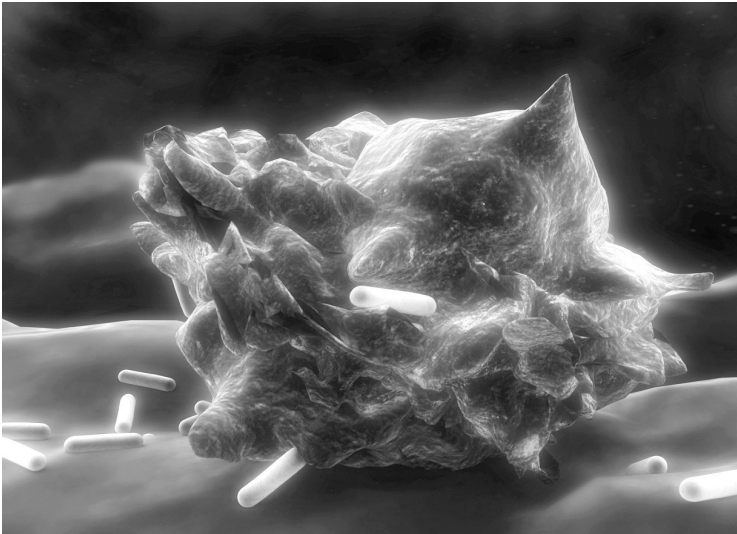


암과 자가면역질환의 숨은 원인 다형성 미생물

| 발터 라스트 | 박병오 「지금여기」 번역위원 옮김 |

혈액을 맑게 재생함으로써 암을 비롯한 난치병과 자가면역질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거의 100여 년에 걸쳐 우리는 미생물이 종종 암과 자가면역질환을 일으킨다는 강력한 증거를 확보해왔고 이제는 시각적인 증거 또한 갖게 되었다. 최신의 발전된 연구현미경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러한 질병을 앓는 사람들의 혈액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볼 수 있게 되었으며, 그결과 이들 질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이해 할 수 있는 핵심이 바로 혈액 속의 내생적 미생물의 급증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난 19세기 루이 파스퇴르의 연구를 바탕으로 과학계는 미생물의 ‘단형성(單形性, monomorphism)’이라는 개념을 채용한 바 있다. 이것은 미생물이 바이러스, 박테리아, 균류 등 원래의 기본적인 형태를 항상 유지한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프랑스의 화학자이자 생물학자 안톤 베샹(Antoine Béchamp, 1816~1908)이 사용한 ‘다형성(多形性, pleomorphism)’이라는 용어는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듯, 미생물이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가리킨다.

역사적인 증거

암과 미생물 사이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아주 드물게 혹은 동물의 종양에서만 발견되어 왔는데, 몇몇 연구자가 모든 암환자에게서 특정 미생물이 급증한다는 것을 독자적으로 보고했다. 그 초창기 연구자 중의 한 명이 동물학과 미생물학 교수인 독일의 귄터 엔더라인(Günther Enderlein)인데, 그는 1925년에 아주 작은 콜로이드 단백질 단위로서 혈액에 존재하는 한 미생물이 여러 단계의 발달 단계를 거친다고 기술한 바 있다.

‘엔더라인 구조’라고 하는 이 단백질 단위는 세포구성물질이 자연적

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며 건강한 혈액을 위해 필수적인 듯하다. 특히 암과 자가면역질환 같은 퇴행성질환은 물론 만성피로증후군과 섬유근육통(Fibromyalgia)의 경우, 이 단백질 단위는 점차 고도의 박테리아 형태로 성장해서 결국 균류가 된다. 이 엔더라인 구조를 토대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암시야 혈액연구이다. 암시야혈액검사는 생혈검사라고도 하며, 현대 자연요법에서 살아 있는 혈액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검사법이다.

엔더라인 외에도 로열 레이먼드 라이프(Royal Raymond Rife), 빌헬름 라이히(Wilhelm Reich), 버지니아 리빙스톤-휠러(Virginia Livingston-Wheeler), 알란 칸트웰(Alan Cantwell), 가스통 네센스(Gaston Naessens) 등의 과학자들이 서로의 연구에 대해서는 거의 모른 채 독자적으로 연구하여 동일한 현상을 기술했다. 그러나 과학적 정설에서 미생물은 항상 동일 형태를 유지하며 바이러스에서 박테리아 혹은 균류로 변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정설을 고수하는 미생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까닭은 그들이 죽은 조직에 있는 죽은 미생물을 착색해서 관찰하거나 살아있는 미생물을 짧은 기간 관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있는 조직 속의 살아있는 미생물을 오랜 기간 아주 높은 배율로 관찰해야 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으로 다형성의 유기체 배양균을 쥐에게 주사한 리빙스톤-휠러의 실험들이 있다. 소량을 주사했을 때는 자가면역질환이 생겼지만 다량을 주사하자 종양 또는 암이 발생했다. 따라서 이 암을 유발하는 미생물들을 가리켜 흔히 ‘암 바이러스’ 또는 ‘암 미생물’이라 불려왔다.

마이코플라스마

다형성 미생물의 생장주기에는 세포벽결여미생물로 존재하는 단계가 있다. 세포벽결여미생물은 우리 몸에서 내생적으로 생기거나 마이코플라스마(mycoplasma,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적인 미생물로 세포벽이 없다-역주)형태로 외부에서 들어온다. 정설적인 미생물학계에서는 세포벽결여미생물이 내생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지만, 마이코플라스마는 1898년부터 가장 작은 박테리아균으로 알려져왔다. ‘마이코(myco)’라는 용어는 균류와 유사한 특성을 가리키며 ‘플라스마(plasma)’는 세포벽이 없는 부드러운 껍질을 말한다. 그들은 사실 박테리아 핵산의 살아있는 입자이며 우리 몸속의 기생충들로 여겨진다.

마이코플라스마나 그 포자는 무척 작아서 마치 바이러스처럼 세균 여과기를 통과할 수 있으며 수혈용 혈액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 마이코플라스마에 감염되어도 보통 정신적 외상을 일으킬 만한 사건으로 고통 받거나 또 다른 이유로 건강이 악화될 때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마이코플라스마는 세포벽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다. 보통 마이코플라스마 감염은 다른 병원성 미생물과 기생충의 존재와 관련 있다.

현재 특별히 주의를 끌고 있는 것은 진드기에게 물려서 생길 수 있는 라임병과 관련된 미생물이다. 라임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인 나선 형태의 보렐리아는, 박테리아 형태는 물론 마이코플라스마나 포자 형태로도 존재한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들은 정상적인 체세포의 표지를 사용하면서 면역계의 감시망으로부터 숨기도 한다.

현대의 라임병은 1975년 코네티컷 주 라임 지역에서 유행병이 되기

시작했는데, 세균전 연구실험실이 가까운 곳에 있었다. 미국 정부의 과학자들은 미 육군 이름으로 결정질 마이코플라스마 퍼멘탄스(Mycoplasma fermentans)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었다. 반(半)합성종인 이 미생물은 자연종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www.publichealthalert.org/Articles/scottforsgren/mycoplasma.html)

마이코플라스마 퍼멘탄스는 에이즈, 라임병, 걸프전증후군, 모겔론스(Morgellon)병처럼 갑자기 유행병이 되어버린 여러 현대 질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폐렴, 방광염, 내분비 장애, 위장관의 문제 및 기타 질병과도 관련 있다. 마이코플라스마로 인한 핵심적인 문제는 콜레스테롤과 기타 스테롤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 더 나쁜 것은 보렐리아 스피로헤타가 지방단백질에 독성효과를 유발하여 몸의 지방대사를 망가뜨린다는 점이다.

마이코플라스마 퍼멘탄스는 수백 가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대부분의 만성질환, 특히 만성피로, 섬유근육통, 일반적인 자가면역질환은 물론 정신분열, 우울증, 알츠하이머 같은 정신질환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파킨슨병을 비롯하여 일부 질환은 마이코플라스마를 제거하면 치료할 수 있다. (www.samento.com.ec/sciencelib/4lyme/Townsendhowens.html)

새로운 현미경

광학현미경의 새로운 기법으로, 쿠르트 올브리히가 개발한 그레이필드법(grayfield method, www.grayfieldoptical.com)이 있다. 이것은 기존의 위상차현미경법(phase contrast microscopy)으로는 보

이지 않는 미세한 구조를 볼 수 있게 해준다. 이로써 환자 혈액에서의 생혈의 분해를 관찰하거나 포자 또는 바이러스가 박테리아와 균류로 바뀌는 다형성 변화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다형성 과정에 대해 연구하던 예전 과학자들은 2,000배 정도의 배율과 200nm의 해상도에 제약받았지만, 이 방법으로는 30,000배의 배율과 100nm이하의 해상도와 함께 매우 깊은 초점심도에서 자연 색상으로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모든 것을 훨씬 더 상세히 볼 수 있으며 촬영할 수도 있다. 주류 미생물학자들은 관찰된 엔더라인 구조가 죽은 단백질의 집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전통적인 분석방법과 이론들을 사용했지만, 그들이 대신 올브리히의 방법을 사용하고 이 대상들의 발달과 움직임을 촬영한다면 더 이상 자신들의 신조를 고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다음의 두 동영상들을 찾아보기를 권한다.

하나는 www.grayfieldoptical.com/humoralpathology.html(22분 34초)에서 볼 수 있는데 혈액 속의 다형성 미생물들의 활동과 발달을 보여준다.

www.grayfieldoptical.com/symbiosisorparasitism.html(50분 50초)에서 볼 수 있는 동영상은 예전에 만들어져서 화질이 좋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장면들이 담겨있다. 과학적인 세부내용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다양한 미생물, 과정들의 이름은 신경 쓰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두 번이라도 보라.

또 이 다형성 미생물들의 발달주기에 대한 자세한 그림과 설명을 위해서 www.grayfieldoptical.com/files/sanguinogramm.pdf를 보라. 몽둥이처럼 생긴 미생물들의 머리에서 새로운 포자 또는 바이

리스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정 크기가 되면 머리가 터져서 새로운 집단의 바이러스 크기의 입자들이 혈액 속으로 퍼진다. 면역세포나 포식세포가 이 바이러스 형태들을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치우지만, 그 수가 너무 많으면 포식세포들 안에서 몽둥이 형태로 계속 발달해 나간다. 결국 바이러스로 가득 찬 머리는 다시 터져서 혈액에 퍼져 나간다.

다형성 미생물의 특성

앞의 동영상들은 건강한 사람의 혈액은 잘 형성된 적혈구들로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더하여 꼬리 하나가 달린 아주 작은 소구체들이 희미한 배경구조를 이루고 있다. 급성감염이 발생하면 이 소구체들은 훨씬 더 크게 자라서 두 번째 꼬리가 생기며, 감염이 없어지고 난 뒤에 다시 사라진다. 몸이 좀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거나 암 발생 전의 상태에 있다면 이 구조들은 둥글거나 늘어난 몽둥이 형태로 계속 남아서 보이게 된다.

흥미롭게도 이 소구체들은 적혈구로 들어갔다 나왔다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다형성미생물들은 주로 혈당으로 살아가는데, 혈당이 높으면 적혈구 밖 혈장에 있다가도 혈당이 낮아지면 더 많은 먹이를 찾아 적혈구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 그리고 달콤한 먹이를 먹고 나면 밖으로 다시 나온다.

면역계가 계속 악화되면서 균류처럼 생긴 긴 실을 가진 형태들이 발달하고 점점 더 크게 자란다. 다형성 미생물들의 동영상에서 보이는 섬유들은 모겔론스병에서 발견되는 이상하게 생긴 종들을 연상시킨다. 모겔론스병에 걸리면 합성종 같은 이상한 실이 피부 밖으로 돋

암 말기에는 거의 100%의 적혈구가 다형성 미생물에 감염되어서 기능을 상실한다. 하지만 진행된 암이라도 특별한 엔더라인 백신을 사용하면 적혈구들이 한 달 이내에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면서 동시에 암세포의 전이가 위축된다

아나온다. 이것으로 나는 모겔론스병이 미 육군이 결정질 마이코플라스마 종들을 개발한 결과로 생겼다고 짐작한다.

시간선상으로 보면 1986년에 처음으로 특허를 신청했고, 1993년에 마침내 특허가 부여되었으며, 2002년에 ‘모겔론스병’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정황상 미군이 2차 세계대전 직후 마이코플라스마 실험을 시작했던 것이 분명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몇몇 유행병이다. 예를 들자면 로열 프리 유행병(1955년 런던의 로열프리병원 직원들 사이에 유행한 증후군-역주)이 있는데, 이 병은 계속 진행되면 근육통성 뇌염으로 발전하며, 오늘날에는 만성피로증후군 혹은 섬유근육통으로더 잘 알려져 있다.

커다란 균류 형태들이 암과 에이즈의 말기에서 보인다. 이 환자들이 전신성 균류감염이나 진균증 때문에 빈번하게 사망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통적인 이론에서는 이것이 종양이나 에이즈 바이러스에 의한 이차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반면, 다형성 미생물의 생활사를 관찰해보면 균류 상태의 다형성 미생물이 암과 (아마도) 에이즈로 인한 사망의 일차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심한 진균증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이유는 아마도 세포 내부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가 균류의 독성물질에 중독되고 동시에 다형성 미생물들이 적혈구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이 다형성 미생물들은 적혈구 내부를 가득 채워서 그 영양분을 고갈시키는 것은 물론, 그들이 혈장으로 나올 때 적혈구의 세포벽에 가

시각은 긴 돌출물을 형성한다. 자가면역질환인 증중근무력증을 가진 어떤 이는 그의 적혈구 대부분이 검은 성게처럼 생긴 것을 보고 충격 받았노라고 말했다. 이 적혈구들은 더 이상 몸에 영양분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지라에서 빠르게 파괴된다.

이것이 진행된 암과 기타 다양한 질병들에서 심한 빈혈이 흔하게 나타나는 진짜 이유이다. 암 말기에는 거의 100%의 적혈구가 다형성 미생물에 감염되어서 기능을 상실한다. 이렇게 해서 생긴 악액질(극도의 전신쇠약증세) 때문에 암과 에이즈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두 번째 동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진행된 암이라도 특별한 엔티라인 백신을 사용하면 적혈구들이 한 달 이내에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면서 동시에 암세포의 전이가 위축된다.

혈액 속 다형성 미생물의 과다증식이 어떻게 해서 많은 질병을 초래하는지 의구심이 들 것이다. 그 해답은 사이클론이나 허리케인으로 한 건물은 산산이 부서졌지만 왜 다른 건물은 멀쩡한지, 또는 한 집은 지붕이 날아가 버리는데 왜 다른 집은 수해만 입는지와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면역계가 심하게 약화되면 병원체가 마음대로 활동하게 되고 그러면 가장 약한 기관이 첫 번째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오르곤 실험

월등히 좋아진 울브리히 현미경으로 새롭게 관찰해보면 1940년대에 유사한 미생물과정들을 기술했던 빌헬름 라이히의 오르곤 실험도 입증할 수 있다(The Cancer Biopathy, Ferrar, Straus and Giroux, NY, 1973). 그는 ‘말기’ 암환자들만 무료로 치료했다. 보통 통증이 사라지고 혈액 상태와 몸무게는 좋아졌으며 종양은 축소되거

나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죽어갔다. 여기서 그는 종양이 암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라이히의 작업은 의료계에 위협이 되었고 FDA의 감독 아래 그의 모든 저서와 실험장비들이 불타고 부서졌다. 과학적 이론을 토론하기에는 법정이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는 태도를 고수하다가 그는 결국 1957년 미국의 감옥에서 죽어갔다(www.wilhelmreichtrust.org/biography.html).

내가 지난 세기 가장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라고 생각하는 그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생물학적 생명의 기본단위인 바이온(bion)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는 각종 음식물과 채소를 백열광이 날 때까지 가열하다가 살균된 배양액에 넣으면 둥근 형태를 띠면서 진동하거나 움직이는 바이온이 되며, 이를 암시야현미경이나 형광현미경에서 관찰하면 푸르게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라이히는 세밀한 구조보다는 색상과 움직임에 더 잘 관찰하기 위해 주로 3,000~5,000배에서 관찰하였다.

푸른색이 더 강할수록 관찰 대상의 생명력은 높아진다. 건강한 적혈구에서는 푸른색이 보이지만 죽은 적혈구는 검게 보인다. 라이히에 의하면 이 푸른색으로 반짝이는 것이 그가 오르곤(orgone)이라고 불렀던 생물에너지 또는 생명력의 특성이다. 이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물과 공기에도 존재한다. 오르곤은 태양에서 생겨서 햇빛을 통해 전달된다. 오르곤의 생물학적 단위인 바이온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집적되면서 아메바 모양이나 원생동물 구조로 진화할 수 있다.

라이히는 퇴화된 단백질에서 파생된 또 다른 형태를 T바실리(T-bacilli)라고 했다. 이는 독일어로 Todes Bacilli, 다시 말해 ‘죽음의 바실리’를 의미하며, 암조직이나 암환자의 혈액, 발암 전 상태인 사

람의 혈액, 그리고 변질된 혈액에서 쉽게 배양된다. 다량을 주사하는 것으로 쥐는 24시간 이내에 죽을 수 있고, 소량에서는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이들은 검은색이고 렌즈(양날 끝이 뾰족한 의료용 칼-역주) 모양이며 올브리히가 기술한 것과 비슷한 크기이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푸른 바이온이 검은 T바실리뿐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프로테우스 바실리까지도 무력화하거나 죽이는 것이 관찰된다는 점이다. 강한 푸른색의 적혈구들이 같은 방식으로 T세포와 병원성 박테리아를 죽였지만, 그렇게 하면서 적혈구들은 푸른색을 얼마간 잃었는데 이것은 이 과정에서 그들의 생명력이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르곤에너지로 충전된 적혈구들이 종양으로 들어갔을 때 암조직은 운동성이 없는 T체들로 분해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적혈구들도 사라지고 종양은 T체들로 가득 찬 커다란 공동을 형성했다. 원래는 피처럼 붉은 색을 띠던 공동이 종양과 혈구들이 분해되면서 짙은 갈색으로 변하는 것이 육안으로 관찰되었다.

라이히는 햇빛, 특히 대기로부터 오르곤을 집중시키는 그의 오르곤 집적기를 사용하면 약한 적혈구들이 충전되어 강한 푸른색을 띠고 생명력이 늘어나는 것을 관찰했다. 어떤 치유사들은 손으로 강한 바이오에너지를 흘려보내고 또 어느 정도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마음으로 에너지를 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변질된 혈액

모든 암, 자가면역질환과 만성감염은 변질된 혈액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적혈구의 오르곤이 미약하고 혈장과 적혈구에 다형성 미

생물들이 존재하게 되면 이것은 명백해진다. 푸른색이 약할수록, 그리고 다형성 미생물들이 더 많이 퍼지고 더 진화되어 있을수록, 혈액의 변질이 심해지고 만성질환이 더 진행된다.

또한 수혈에 사용되는 혈액이 마이코플라스마에 감염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게다가 변질된 혈액에서는 T바실리가 생성되기 때문에 수혈하지 않을 때보다 수혈했을 때 오히려 경과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www.theheart.org/article/817715.do).

그러므로 우리가 혈액의 변성을 초래하는 상태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주된 원인은 지금 널리 퍼져있는 장누수증후군(leaky gut syndrome)이다. 이 질병에 걸리면 아직 덜 소화된 단백질 뿐만 아니라 미생물의 부산물까지 장벽을 투과해서 그대로 혈중으로 유입된다. 이것은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면역계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적혈구의 생명력까지 감소시켜서 다형성 미생물의 침입에 갈수록 무방비 상태가 된다. 장누수증후군은 항생제와 화학요법, 기타 약물들로 장내환경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칸디다균과 기타 병원성 미생물들이 장벽에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렇게 장벽이 약해지면서 장벽의 침투성이 더욱 커진다.

또 다른 요인들로는 몸의 다른 곳에서의 만성적인 감염과 염증이 있다. 스트레스와 근심걱정, 의료용 약물, 오락성 마약, 가공음식과 영양결핍, 마이크로파와 전자기파에 대한 노출, 치근관 치료, 아말감 충전으로 인한 불소와 수은, 그리고 일반적인 오염물질은 우리의 생명력을 떨어뜨린다.

라이히에 의하면 T바실리는 단백질이 변성되는 과정에서 생긴다. 이 변성과정은 단백질이 활력을 잃을 때 시작된다. 우리는 두 가지 형

태의 단백질 변성을 흔하게 경험한다. 하나는 익힌 음식을 부적절하게 섭취하면서 생기고, 다른 하나는 단백질 노폐물이 조직에 점차 축적되면서 생긴다.

음식물은 요리, 저장이나 여러 기계적인 과정을 통해 그 생명력을 잃을 수 있다. 요리 직후에 음식물은 즉각적으로 생명력을 잃기 시작해서 몇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사라진다. 그러므로 요리가 끝난 후에 바로 음식을 먹는다면 본래의 생명력을 아직 많이 취할 수 있지만 다음날이 되면 이 음식은 T바실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 신선한 음식도 비슷한 방법으로 오랜 시간동안의 또는 적절치 않은 저장이나 기계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그 생명력을 잃게 되고 그리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된 음식과 구운 식품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이히가 관찰한 또 하나의 결과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바이온과 T바실리가 뒤섞이면 T바실리는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생명력이 풍부한 신선한 음식을 그렇지 않은 음식에 섞으면 몸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익힌 음식이 식성백혈구증가증(digestive leukocytosis)을 불러오기 쉽다는 관찰결과와도 들어맞는다. 이 증상은 요리된 음식을 먹은 후에 백혈구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뭔가 독성물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익히지 않은 음식을 먹은 후에는 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요리된 음식에 익히지 않은 음식을 일부 넣으면 백혈구증가증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전통적으로 음식이 가진 생명력은 펜듈럼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왔지만 이제는 객관적인 도구로 가능하며 구입해 쓸 수도 있다. 이것은 바로 생명에너지측정기(Experimental Life-Energy Field Meter)인

데(www.orgonelab.org/cart/ylemeter.html), 현재 360 US달러에 판매하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함께 분담하여 공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단백질 변성의 두 번째 형태는 단백질 노폐물이 세포와 조직에 축적되는 것이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노화되면서 나타나며, 특히 모든 종류의 퇴행성 질환에서 두드러진다. 어떤 세포들은 저장된 부패물질이 용적의 70%까지 차지하기도 한다. 이 문제는 주로 천연효소가 없는 단백질을 습관적으로 섭취하기 때문에 생긴다. 효소들의 대부분은 45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 파괴된다. 그 해결책으로는 주로 익히지 않은 음식을 먹거나 소식하거나, 또는 정기적으로 생식클렌징을 하는 방법이 있다.

자가면역질환의 이해

마이코플라스마 감염의 메커니즘을 보면 우리는 자가면역질환의 진정한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급성 박테리아 감염의 초기단계에 면역계는 침입하는 대부분의 미생물들을 제거하지만 일부 미생물은 취약한 기관이나 분비선의 세포들 안에 숨어서 살아남는다. 이들은 숙주의 생명력, 특히 면역계가 충분히 약해질 때까지 가능하다면 마이코플라스마 또는 포자형태로도 그곳에 머물 수 있다. 적당한 때가 되면 이들은 혈액으로 슬그머니 나오는데, 이때 자신이 숨어있던 세포들의 생물학적 지표들을 흉내 내면서 위장한다. 한동안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결국 면역계는 속임수를 간파하고 이 사기꾼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불행하게도 이때 같은 지표들을 가진 진짜 체세포들도 공격받는다. 이렇게 해서 원래 침입자들이 숨어있던 기관이나 분비선들에

자가면역질환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에 내 경험을 보태보니 그런 자가면역 공격은 적절한 자연요법들로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혈액에서 면역계와 적혈구들을 약하게 하는 다형성 미생물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면역세포들은 혈액에서 거짓 지표로 위장하고 있는 미생물들을 제거할 수도 있다. 이것은 결국 같은 지표들을 가진 정상적인 체세포들에 대한 공격을 멈추게 한다. 만약 침입한 미생물이 살아남는 경우, 그 미생물은 적당한 숙주세포에 들어가서 포자 형태로 다시 숨기도 하며, 이 포자들은 세포가 분열되면서 전달되기도 한다.

암의 이해

암은 자가면역질환에서 말한 것과 흡사한 사전감염, 또는 단백질 노폐물의 축적으로 약해진 조직에서 생기는 다형성 미생물들로부터 시작될지도 모른다. 이 경우에 몸은 침입한 미생물을 피복해버림으로써 제압하는데, 이것은 몇몇 나무들이 말벌에 쏘였을 때 껍질에 혹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 혈액이 깨끗하다면 종양은 그저 종양일 뿐, 악성도 암도 아닌 것이다.

하지만 흔히 그렇듯 정신적 외상의 결과, 혈액이 다형성 미생물들에 감염된다면, 피복되었던 미생물들이 증식하기 시작해서 다음 단계의 형태로 발전한다. 이들은 종양의 확산을 초래하는 성장호르몬을 생산한다. 이제 종양은 악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억제되고 있다. 이 상황은 여러 해 동안 지속될 수도 있는데 그동안 종양은 신체의 생명력과 면역력에 따라 서서히 자라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휴지기에 들어간다.

결국에는 여러 해가 지난 후, 다형성 미생물들의 존재로 혈액의 상태가 나빠지면서 일부 종양은 다른 곳으로 전이된다. 그러나 작은 종양까지도 제거하는 것이 현대의학의 추세이다. 그 과정에서 더 위험한 미생물이 혈액 속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그 때문에 휴지기 상태로 미세전이된 종양들이 예정보다 빠르게 생애주기를 시작하게 된다 (www.health-science-spirit.com/cancersurgery.html).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전이 때문에 환자가 사망하지는 않는다. 종양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신체조직을 압박하는 경우가 아닌 한, 보통 종양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악액질(극심한 체중감소와 근육소모를 동반한 전신쇠약증세) 때문에 사망한다. 악액질이 발병하는 까닭은 다형성 미생물로 인해 대부분의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진행성 빈혈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것이 암으로 인한 사망의 주원인이다.

혈액의 재생

만성질환을 극복하거나 또는 정말 건강해져서 우리 몸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혈액의 재생이라는 것이 이제 명백해 보인다. 우리는 다형성 미생물을 제거하고 적혈구를 생명 에너지로 충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목표이다. 혈액이 재생되면 면역계가 종양과 감염된 기관에서 다형성 침입자를 제거할 수 있게 되는 듯하다. 이렇게 되면 종양이 줄어들고 자가면역 공격이 멈춘다.

그러므로 먼저 항균제와 적절한 생균제 또는 발효음식을 조합하여 위장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것이다. 몇 달 동안 또는 관련 질병으로 인한 증상들이 바로 잡힐 때까지 이것을 계속하는 것

이 좋다. www.health-science-spirit.com/ultimatecleanse.html에 나와있는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싶다. 이 프로그램에 양질의 신선한 생식(예를 들어 www.health-science-spirit.com/HF2-1.html의 내용), 그리고 적절한 운동프로그램과 야외활동을 조합한다. 앞에서 언급한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육류에 남아있는 혈액에 주의를 기울이라. 생명력이 낮은 혈액은 병원성의 다형성 미생물들, 특히 T바실리로 빠르게 해체된다. 이것으로 동물의 몸에서 혈액을 모두 빼는 종교적 도축행위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이런 방식은 성서와 이슬람, 유대교는 물론 초기 기독교의 성경 전통에 기초하는 육식사회의 종교전통들에서 권장된다. 이와는 반대로 신선하고 건강한 혈액은 강력한 치유제이며 암을 치료하기 위한 수혈에 사용되어왔다. 마사이족은 고기를 거의 먹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가축의 신선한 혈액을 생우유에 섞어서 마신다. 줄루족도 동물의 신선한 혈액을 마시며 몽고인들은 말의 혈액을 마시기도 한다.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하는 좋은 방법은 생혈검사이다. 혈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타난다면 정상적인 결과를 얻을 때까지 약 3개월마다 검사해본다. 혈액과 소변의 생명력을 모니터하기 위해 생명에너지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는 여러분에게 제시된 여러 치료법들을 섞어서 병행하지 말고, 한 가지 프로그램을 하나씩 따를 것을 추천한다.

합리적인 암 치료

암을 극복하기 위해, 특히 큰 종양이 있거나 전이가 진행된 경우에는 몇 가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가능성이

만성질환을 극복하거나 또는 정말 건강해져서 우리 몸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혈액의 재생이다.
우리는 다형성 미생물을 제거하고 적혈구를 생명에너지로
충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목표이다.

있다.

여러분은 생명력을 회복하는 일에 주된 초점을 맞추면 된다. 빌헬름 라이히는 그의 오르곤 집적기로 이렇게 했다. 종양이 사라진 경우에도 많은 환자들이 사망했는데, 그 원인은 짐작컨대 장기에 지나친 부하를 주던 큰 종양들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독성효과 때문이다.

거슨 식이요법은 생명력을 보충해주는 신선한 야채주스를 바탕으로 하며 형성된 독소들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면역계가 다형성 미생물들과 종양들을 공격하면서 흔히 심각한 염증이나 명현반응을 가져온다. 당근처럼 달콤한 채소로 만든 주스로 인해 혈당이 과다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그런 주스의 최소한 반은 푸른 잎채소로 이루어져야 하며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다.

염증으로 인한 위기는 하루 1킬로그램의 포도를 나누어서 먹는 포도요법이나 하루 0.5리터의 신선한 야채주스를 나누어 마시는 브루스(Breuss) 요법 등을 병행하면서 음식물 섭취를 큰 폭으로 제한하면 피할 수 있다. 이 두 프로그램들은 6주 동안 실행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은 종양들을 스스로 소화시키고 다형성 미생물들은 굶어 죽게 되지만, 이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좋은 체중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인 생식 클렌징을 몇 번으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접근법은 몸을 알칼리성 체질로 만드는 것이다. 엔더라인

교수는 다형성 미생물이 알칼리성 환경에서 녹아버리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혈액을 자연스러운 pH 7.4정도의 약알칼리성 상태보다 더 높게 하지는 못하지만, 림프계를 알칼리 상태로 만들 수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종양들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중탄산나트륨요법(sodium bicarbonate therapy)을 조금 바꾼 방법들로 가능하며, 세슘 클로라이드(cesium chloride)를 사용하면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많은 염증을 일으키지 않고도 종양을 제거할 수 있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동안 다양한 항균치료제들과 장치들이 사용되어왔는데 입증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연구를 통해 효과가 검증된 것들도 있다. 이들 대부분은 강한 항균성을 가지고 심한 염증을 일으키지 않고도 작용한다. 이들은 주로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형성 미생물이 없으면 종양이 사라져버리는 듯하다.

여러 예들 중에서도 잘 알려진 것들로는 올리브 잎 추출물, 포다르코(pau d'arco) 추출물, 비산성화된 아염소산나트륨, 케로신, 루골요오드용액, 오존과 과산화수소(정맥주사), 전자살충기와 다형성 미생물들을 파괴하는 특정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라이프 주파수 발생기(Rife Frequency Generator) 같은 다양한 전자장치들이 있다. 짐 험블(Jim Humble, <http://humblemiraclemineral.com>)은 집중적인 MMS 요법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FDA의 극심한 방해와 억압 때문에 그것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미노사이클린(Minocycline)과 독시사이클린(Doxycycline)은 세포벽결여박테리아에 작용하는 전통적인 항생제이며 각종 자가면역질환에 성공적으로 사용되어왔다. 단, 아주 적은 양을 장기간에 걸쳐 투약해야 한다. 물론 항균제와 생균제는 추가로 필요하다.

내가 선호하는 방법은 양질의 식이요법과 정기적인 생식클렌징, 알칼리성 체질화를 조합하고, 적정량의 향미생물 약품과 장치들을 정기적으로 교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는 것이다. 또 나는 팔다리의 혈관을 햇빛에 노출시켜서 혈액에 활력을 주는 것을 즐겨한다. 혈액이 깨끗해 보이고 (또는) 종양이 사라지거나 휴지기에 들어간 것이 확실해보일 때까지 이런 노력을 지속한다. 자세한 내용은 www.the-healyourself-series.com/OvercomingCancer.html을 참고하길 바란다. 자가면역질환과기타 퇴행성 질환에도 이런 접근법들이 도움이 된다.

현대의학은 종양이 환자들을 죽게 만드는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타당한 증거를 토대로 나는, 종양이 어느 정도는 무해하며 암, 에이즈, 기타 질병으로 사망하는 주원인은 다형성 미생물로 혈액이 오염된 데 있다고 결론 내리게 되었다. (끝) 

- 이 글은 'PLEOMORPHIC MICROBES'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발터 라스트**(Walter Last) | 영양학과 자연치유법을 실행하면서 화학자, 영양학자, 독물학자(毒物學者)로서의 훈련과 연구 경험을 결합하였다. 독일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그라이프슈발트, 쾰른, 뮌헨 대학의 의학연구소에서 연구와 독물학 조사 분야에서 일해 왔다. 쾰른에서 주임 법 화학자였고 LA의 생물학 실험실에서도 일했다. 70년 그는 뉴질랜드에 정착하였으나 약에 기반을 둔 의료에 불만족하여 자연치유사로 임상을 했다. 1981년 이래 퀸즈랜드에 살고 있으며 난치병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자연의학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자연치유법을 조사하고 실험해왔다. 『그대 자신을 치유하라』, 『치유의 음식들』, 『치유를 위한 자연스런 방법』의 저자이다. 『자가 암치유』 도서들에 주요 기고자이다. 최근작으로는 『그대 자신을 치유하라』 시리즈이다. 웹사이트 www.health-science-spirit.com

역자 | **박병오** | 「지금여기」번역위원